

2010 경기 희망과 대안(가칭) 결성 제안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1) 경과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경기도의 지방선거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논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기획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 경기도지방선거 대응 방안을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기획소위원회에서는 서울 중심으로 진행되는 희망과대안, 2010연대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3차례 회의와 12월 4일 대표자운영위원 확대회의를 통해 2010 경기도지방 선거 대응방안을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에 먼저 제안하기로 하였다.

2) 전국과 경기지역 지방선거 대응 논의 진행 과정

언론악법 날치기, 4대강 사업 강행 처리 등 국민의 여론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일정을 고집하고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하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판의 목소리와 2010 지방선거 대응에 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서울에서는 내년 서울 시장 선거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처음에는 좋은 서울시장 만들기에서 시작한 선거 대응 모임이 이제는 수도권, 전국적으로 연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시장 만들기에서 시작한 진보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2010연대, 시민사회단체 원로와 활동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희망과 대안 이외에 30여개 단체가 모여 서울 시장 출마를 추진하는 민주넷 등 서울 중심의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연대 기구가 4-5개에 이르고 있다.

경기지역도 원탁회의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출범한 희망광장, 교육감선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교육희망연대, 군포빨뿌리 생활정치네트워크 등 기초 지역의 풀뿌리 선거 대응 조직 결성 등 다양한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논의와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12월 1일에는 희망과 대안의 제안으로 2010 지방선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는 희망과 대안의 고민을 전국 시민단체와 공유하고 지역별 대응 조직의 결성을 위한 모임으로 계획되었다. 1차 모임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방선거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은 확인하였지만 그 동안 서울 중심의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별 특성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다음 모임을 잡아 논의를 계속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도출하였다.

3) 2010 경기지방선거 대응의 특징

경기도는 교육감선거에서의 좋은 경험과 사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일당 독주의 지방자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도의원 전원, 31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군수 중 29명, 경기도 지사 모두 한나라당이 당선되었다.) 이는 전국최대 인구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지방자치가 시민과 도민의 참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견제도 없이 일방 통행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주, 진보세력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정치참여와 뿌뿌리 지방자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준비되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흐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생활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방자치의 성격 상 경기도정은 그 규모와 중요성,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하지만 이번 무상급식 예산의 도의회 전액삭감 사태에서도 보여지듯이 경기도정은 감시와 견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4) 2010 경기 희망과 대안(가칭) 결성 제안

경기도의 특수성과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2010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경기지역 대응조직 결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의 민주,진보 세력이 힘을 합쳐 참가하는 가칭 [2010 경기 희망과 대안] 결성을 제안한다.

가칭 [2010 경기 희망과 대안]은 2010 경기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발굴 지원하여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경기도 단위의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경기도의 한나라당 일당독주를 막아내는 활동을 광범위한 시민 유권자 참여 운동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가칭) 2010 경기 희망과 대안 조직구성과 사업 (안)

1. 목적

2010 경기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의 민주, 진보세력의 결집을 통해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를 막아내고 민생, 민주, 환경, 여성 중심의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 발굴 등을 통해 시민의 지방자치참여를 확대한다.

2. 구성

목적에 동의하는 기초단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단위 시민사회단체, 진보단체, 노동조합 등 개별단체와 종교계, 교수, 지역 원로 등 개별 인사 참가를 통해 구성한다.

참가단체 대표와 개별인사 포함 100-200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주요 사업

1) 경기도의 민주주의 불균형 상태의 일당 독주를 막아낸다.

(1) 김문수 경기도지사 4년 도정 평가를 통한 심판 운동

- 민선4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책 및 공약 평가 실시
- “경기도를 망친 10대 정책” 도민 평가

(2) 경기도 일당 독주 철폐 10만인 선언 운동

2) 좋은 후보 발굴,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다.

(1) 기초단위 풀뿌리 지방자치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2) 좋은 후보의 기준과 선정 방법을 공론화하여 유권자의 참여를 조직한다.

- (대상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 시도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 좋은후보추천 공감단 구성 및 활동으로 시민정치 참여운동 전개

3) 경기도 좋은 정책 제안 운동

- (1) 민생, 민주, 복지, 환경, 여성, 평화 중심의 좋은 정책을 제안한다.
- 경기도 희망 정책단 구성 및 활동
 - “희망과 대안을 위한 경기도 10대 정책” 선정
 - 제 정당과의 진보개혁 가치와 정책의 연합 형성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2) 좋은 정책 실현 유권자 참여 운동을 진행한다.
- 도민 희망 정책 제안 및 10대 정책 선정 참여 운동
- (3) 경기지역시민신문 등 인터넷 지역신문과의 연계된 홍보 및 참여전략

4. 운영 방안

- 1) 재정
- 참여단체와 개인의 회비로 운영한다.
(단체, 개인 모두 10만원 이상의 회비 납부)
- 2) 운영위원회와 공동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 부문과 지역, 개별인사를 대표하는 20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 부문과 지역, 개별인사를 대표하는 5인 내외의 운영위원장이 조직을 총괄한다.
- 3) 전원회의, 사업별 모임 운영
- 창립 등 주요한 결정은 구성원 전체가 참가하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구성원 전체가 사업별 모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 4) 사무국
-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상근 활동가가 활동하는 사무국을 구성한다.

5. 추진 일정

2010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여 1월 중하순 발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 1)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단체 제안서 발송과 의견수렴
12월 7일 - 12월 14일
12월 15일 기획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의견 확정
- 2) 경기지역 민주,진보 단체 개인 제안과 의견 수렴
12월 16일 - 12월 27일
12월 28일 오후 5시 (가칭) 경기희망과대안 준비 회의
- 3)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직 사업과 조직 결성
12월 29일 - 1월 21일
2010 1월 중하순 조직 결성